

본당 소식

♣ 오늘의 전례

-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미사를 시작하며 사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고 삼위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은총과 사랑과 친교의 원천이신 삼위일 체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미사에 참여합니다.

♣ 세례를 축하드립니다.

-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이수혁 시몬 형제님의 세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형제님의 새로운 신앙 생활을 위해 신자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지난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186.30€ • 교무금 000.00€

♣ 봉사자

• 계단, 화장실: 강한 프란체스코

전례 성가

입당 : 81 (영광의 주 성삼위)

봉헌 : 512 (주여 우리는 지금)

성체 : 170 (자애로운 예수)

169 (사랑의 성사)

파견 : 82 (주 찬미)

전례 봉사

이번 주일(6월 15일)	다음 주일(6월 22일)
1독서: 강한 프란체스코	1독서: 박건욱 레오
2독서: 박수정 클라라	2독서: 이소현 엠마
복 사: 김사빈 엠마, 정이한 다윗	복 사: 변가인 헬레나, 정아인 레나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사목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김재의 미카엘 ·총무: 박건욱 레오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체스코

2025년 6월 15일 (백)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미사 전례

본기도

하느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신 성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세상에 보내시어 하느님의 놀라우신 신비를 인간에게 밝혀 주셨으니 저희가 참신앙으로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영광을 알고 오직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을 흠송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우러러 당신 손가락으로 빚으신 하늘하며,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나이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

○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나이다.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아래 두셨나이다. ◎

○ 저 모든 양 떼와 소 떼, 들짐승하며,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물속 길을 다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

제1독서 (잠언 8,22-31)

하느님의 지혜가 이렇게 말하였다.

22 “주님께서는 그 옛날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당신의 첫 작품으로 나를 지으셨다.

23 나는 한처음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영원에서부터 모습이 갖추어졌다.

24 심연이 생기기 전에, 물 많은 샘들이 생기기 전에 나는 태어났다.
 25 산들이 자리 잡기 전에, 언덕들이 생기기 전에 나는 태어났다.
 26 그분께서 땅과 들을, 누리의 첫 흙을 만드시기 전이다.
 27 그분께서 하늘을 세우실 때,
 심연 위에 테두리를 정하실 때 나 거기 있었다.
 28 그분께서 위의 구름을 굳히시고 심연의 샘들을 솟구치게 하실 때,
 29 물이 그분의 명령을 어기지 않도록 바다에 경계를 두실 때,
 그분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30 나는 그분 곁에서 사랑받는 아이였다.
 나는 날마다 그분께 즐거움이었고 언제나 그분 앞에서 뛰놀았다.
 31 나는 그분께서 지으신 땅 위에서 뛰놀며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5,1-5)

형제 여러분,
 1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2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3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4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5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받으소서. ◎

복음 (요한 16,12-15)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2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13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14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15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교회가 삼위일체의 조화와 친교를 본받아 말씀을 전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특히 이웃의 고독과 아픔에 눈을 뜨고 마음을 여는 용기를 주소서.
2.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전쟁과 폭력 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모든 전쟁 중인 지역에 당신의 자비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어, 저희가 혼란과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죽음이 아닌 생명을, 증오가 아닌 대화를 선택하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3. 자살의 유혹을 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자살의 유혹을 받는 이들을 굶어살피시어, 외로움과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 함께하시고, 사회의 관심과 이웃의 보살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 주소서.
4.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에 은총을 베푸시어, 각자의 삶에 갇히지 않고 서로의 얼굴을 알아보며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히 오늘 세례를 받은 이수혁 시몬 형제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가득히 베풀어 주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 하느님,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고 고백하며
 성체를 받아 모셨으니
 저희 몸과 마음을 구원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